

힘한 것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야. 일반인이라면 신기하다고 구경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그만이지만, 마케터는 거기서 영감을 얻어야 하니까.

두낫땡클럽을 만든 이승희를 지난번에도 언급한 적 있지? 배민에 근무할 때부터 꽤 오래 지켜봤는데, 처음에는 그야말로 ‘마케팅의 마’도 잘 모르는 친구였어. 그런데 뭐든 스스럼없이 잘 물어봐. 또 마케터의 일을 잘하고 싶어서 기록을 시작했는데 SNS에서 꾸준히 공유하더니, 이걸 《별게 다 영감》이란 제목의 책으로 엮었더라. 이 책 강추야. 별것 아닌 일상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사소한 것에서 영감을 얻어내는 방식을 익힐 수 있어.

오스카 와일드가 “Before Turner, there was no fog in London”이라는 말을 했어. 영국이 자랑하는 미술가 윌리엄 터너William Turner는 안갯속 풍경을 그리는 화가로 유명해. 앞의 말을 해석하자면 터너가 그리기 전까지 런던의 안개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는 것 아니겠어. 평소의 일상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특별한 것이 되고 가치가 달라진단다.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되어보렴.

더 많은 것을 창조하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해. 우리가 싫어도 시간은 세상을 변화시키거든. 오늘의 우리가 내일의 우리로 지속될 수 없어. 그래서 위기가 오고, 기회도 동시에 주어지지. 단, 시간은 우리에게 여유를 주지는 않아. 오늘 더 많은 성과를 거두려면 어제와 똑같은 생각이나 구상을 해서는 안 되니,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해.